

## 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역할: 처벌결과의 전환성에 따른 범죄의도

# 윤상연 장디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범죄미디어에 대한 시청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자 체포와 처벌이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왔지만, 여전히 결과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범죄자 체포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사회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체포과정에서의 전환성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범죄의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리포트 도용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을 달리하는 세 가지 조건(무처벌조건, 우연처벌조건, 필연처벌조건)에 따른 응답자의 도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실제 도용경험을 공변량으로 하여 조건에 따른 도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같은 처벌을 받더라도 우연처벌 조건에서는 도용의도가 필연처벌 조건의 도용의도보다 높았으며, 처벌을 받지 않은 조건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그 처벌과정에 대한 묘사가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형사정책적인 의의와 범죄미디어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범죄미디어, 범죄의도, 사회학습이론, 전환가능성, 사후가정사고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구법학관 115호  
E-mail : tkhur@korea.ac.kr

최근 들어 범죄 수사과정을 묘사하는 미국 범죄 드라마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수의 매니아들이 시청을 하던 이 영상물들이 이제 우리의 안방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범죄나 폭력을 포함하는 영상물의 증가는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북미에서는 범죄현상이 뉴스의 주요 관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고(Dowler, 2004; Fleming, 2006), 폭력영상물의 증가추세가 뚜렷하다고 보고되고 있다(Lu, Waterman, & Yan, 2005).

그동안 심리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언론학 등의 분야에서 범죄영상물의 인기만큼이나 그 효과를 다루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 연구들을 통해 대체로 범죄미디어, 특히 폭력물의 범죄유발효과가 인정되고 있다(Bandura, Ross, & Ross, 1961, 1963; Bryant & Zillmann, 2002; Bushman & Anderson, 2001;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0; Hennigan, et al. 1982). 하지만 양자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라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물의 범죄유발 효과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으며(Dahl & Vigna, 2009; Freedman, 1984; Kaplan, 1972; Surette, 1992), 심지어 적절한 욕구해소로 인해 폭력물이 범죄억제효과를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Andison, 1977).

이는 범죄미디어로 통칭되는 자극들이 범죄 유발 또는 억제와 관련된 수 없이 많은 심리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범죄미디어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발생하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범죄 미디어의 특성이나(예를 들어 폭력성의 정

도) 시청자의 특성(예를 들어 시청습관이나 성격특성)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거나 (Berkowitz, 1969),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들(Belson, 1978)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범죄미디어와 관련하여 주로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8)을 기초로 범죄행위의 모방과정, 범죄자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의한 범죄 유발·억제 효과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의 발생과정에는 범죄행위와 처벌 사이의 인과성 인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Bandura, 1986; Rosenthal & Zimmerman, 1978). 그런데 실제 범죄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범죄자의 처벌과정은 인과성에 있어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대표적인 범죄미디어를 예로 든다면, “CSI(Crime Scene Investigation)<sup>1)</sup>”, “NCI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sup>2)</sup>” 등의 미디어에서는 수사관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수사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밝혀내는 필연적 처벌과정으로 묘사된다. 반면 “거북이 달린다<sup>3)</sup>”, “Catch me, if you can<sup>4)</sup>” 등의 미디어들에서는 무능한

---

- 1) CSI는 철저한 과학적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 수사대다. CSI의 활약을 다루는 이 드라마는 치밀한 사건해결 과정의 전개를 보여준다.
- 2) 해군과 해병대에 연루된 모든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NCIS는 치밀한 사건조사를 통해서 미궁으로 빠질 것 같았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3) 하는 일이라고는 없는 시골 형사 조필성이 우연히 이 마을에 들른 희대의 탈주범을 잡기 위한 과정을 그린 영화로, 조필성은 실수연발, 고군분투 끝에 겨우 탈주범을 잡는데 성공한다.
- 4) 1965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기극의 주인공인 프랭크 애버그네일의 일화를 다룬 영화로, 지능적

형사들이 좌충우돌 끝에 많은 우연적 요소들에 의존해서 사건을 해결한다.

본 연구자들은 범죄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범죄행위와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 인식은 행위와 결과 즉,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련성의 크기를 다르게 지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미디어의 전체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동일한 처벌의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범죄와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의 형태에 따라 시청자의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범죄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범죄와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격이 범죄 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미디어와 범죄

미디어(media)는 흔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한 McLuhan(1967)의 정의가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매체가 미디어라고 한다면 미디어의 범주에는 신문, 인쇄물, 책과 같이 문자언어로 기호화된 것과 영화, 광고, TV 등 음성언어나 가시적 텍스트로 기호화된 것들을 포함한다.

미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범죄미디어는 범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드라마, 영화, 만화, 만평, 관련사건과의 비교기사, 평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기병, 2010).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미디어의 범위와 형태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북미권에서는 TV 법정과 같이 기존의 오락(entertainment) 장르에 사실적 정보

---

인 사기위조범과 그를 쫓는 FBI수사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information)들을 추가하여 “infotainment”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Surette, 2007), 이러한 장르의 미디어들은 범죄사건을 실감나게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범죄에 대한 현실감각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한다(Roberts, 2001).

범죄미디어의 효과는 범죄현상을 다룬다는 고유한 특성 이외에도 일반적인 미디어의 효과에 기초하고 있는데, 미디어가 시청자에 대해서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Severin & Tankard, 1997)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가지 전통적 미디어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는 특정 행동의 긍정적 · 부정적 결과와 같은 문제를 현저히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거나(agenda setting theory: McComb & Shaw, 1973), 미디어 메시지의 조직화와 포장 방식이 시청자들의 정보지각에 영향을 준다(framing theory: Tversky & Kahneman, 1981). 결국 미디어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하며, 범죄미디어를 통해서는, 주로 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발생한 범죄를 평가하거나 예방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지는 정보의 의미와 시청자가 메시지를 보고나서 생각하는 의미는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미디어는 ‘비의도적인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박정순, 1999). 가령, 범죄드라마의 제작의도와 상관없이 시청자가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범죄의도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범죄관련 내용들이 미디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범죄의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는데, 미디어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자극가설<sup>5)</sup>과 부정하

는 정화가설<sup>6)</sup>의 대립에서는 자극가설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Anderson, Keltner, & John, 2003; Bushman, Baumeister, & Stack, 1999; Feshbach, 1984).

### 사회학습이론과 범죄

심리학 이론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도 미디어의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며, 이 이론은 특히 미디어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Bandura와 Walters(1963)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행동이든 타인을 관찰함으로써 배우게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모델(model)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Bandura, Ross, & Ross, 1963). 사회학습이론은 범죄미디어에의 노출 역시 관찰과 모방, 그리고 대리강화와 처벌의 과정으로 보게 되며(Bandura, 1978, 1979), 심각한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학업부정행위(academic cheating)와 같은 비행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Michaels & Miethe, 1989).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과정에서 관찰자에 대한 모델의 영향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

---

- 5) 자극가설(Bandura & Walters, 1963): 폭력적 행동을 보고 나서 시청자들의 성격과 태도에 역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폭력적 미디어, 예를 들면, 범죄드라마 내용은 폭력적 행동을 격려하고 문화사회에 수용되지 않은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조장한다고 한다.
- 6) 정화가설(cathartic effects. Andison, 1977). 적절하게 제시된 폭력에의 노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재된 분노와 자기증오의 치료적인 방출로 작용하게 된다.

생하지만, 특히 모델의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라는 결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Bandura, Ross, & Ross, 1961). 만약, 모델이 한 행동이 보상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관찰자들이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반대로 모델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모방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대리강화와 처벌). 이러한 차이는 유명한 보보인형 실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범죄의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델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Bandura, 1994). 첫째, 억제효과(inhibitory effects. Hicks, 1965)는, 사회로부터의 공식적인 처벌이나 양심의 가책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꺼려서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억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나 관찰을 통해 기존에 학습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 둘째, 탈억제효과(disinhibitory effects. Baron, 1971; Paik & Comstock, 1994)는 억제효과에서 외는 반대로 기존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억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범죄물에서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얻거나 처벌받는 것으로 묘사된다면 억제효과가, 반대로 처벌을 안 받거나 사회적 승인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면 탈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학습이론에서 가정하는 내용과 일치하게, 범죄 영상물의 효과 역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andura, Ross, & Ross, 1963; Bandura, 1994). 따라서 대부분의 범죄영상물이 결국에는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학습이론에 따라서 범죄영상물들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귀결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결과들이 범죄미디어의 범죄유발 효과를 지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공격성 유발효과(윤진, 1991; Anderson, 1997; Berkowitz, 1993; Huesmann & Eron, 1984), 범죄 유발효과(Hennigan et al., 1982), 그리고 모방범죄 유발효과(Comstock, 1980) 등 범죄미디어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세 가지 주된 연구분야에서 전반적이거나 부분적인 유발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범죄자의 처벌 여부가 범죄미디어의 효과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처벌 결과에도 불구하고 억제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처벌결과 이외에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 처벌과정에 대한 사후가정사고

사람들은 현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Pyszczynski & Greenberg, 1981). 범죄라는 현상은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되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지각되므로, 사람들은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개에 대한 인과적인 구성의 노력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인과관계적인 심리기제는 범죄미디어의 심리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설명논리가 된다.

범죄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인과관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처벌을 인과관계로 이어주는 수사와 체포의 과정일 것이다. 우리는 범죄미디어

에서 수사관의 수사과정을 보는 도중에 또는 보고 난 이후에, ‘아, 나 같으면 저런 어설픈 형사에게 잡히지 않았을 텐데...’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자가 범죄현장에 다시 가지만 않았어도 체포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와 같이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사건에 몰입하게 된다.

범죄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 결과를 바꾸어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빈번하게 겪게 된다. “만약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 ...했을 텐데”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현실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라고 부른다(허태균, 2002; Roes, 1997).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과 인과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현실인식이 달라지는데, 인과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사후)가정적 사고의 효과는 사실적 사고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다(Mandel, 2003). 사후가정사고의 효과는 기대와 예측(Roes, 1994; Gleicher et al., 1995), 그리고 책임과 처벌, 보상 등의 사회적 판단(Nario-Redmond & Branscombe, 1996; Wells & Gavanski, 1989)과 같은 인지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험(Medvec, Maday, & Gilovich, 1995; Landman, 1995)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도박에서 거의 돈을 딸 뻔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아쉬움이나 후회와 같은 정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다음 판에 돈을 딸 확률을 실제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인지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경찰의 추적을 거의 따돌릴 뻔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의

감정과 함께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포를 피할 수 있었을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Roesel(1997)는 사후가정사고에 의한 효과가 기본적으로 대비효과와 인과관계추론이라는 두 가지 심리기제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선, 대비효과는 가정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후가정사고의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실이 더 나은 경우에는 만족감을, 현실이 더 나쁜 경우에는 불만과 후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후가정사고는 조건문의 의미와 형태를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추론을 내포하고 있다. 즉, 사후가정사고에서는 조건부분에서 특정 선행사건의 전환이, 결과부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Branscombe & Weire, 1992; Macrae, 1992; Nario-Redmond & Branscombe, 1996). 이런 인지적 추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미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적 측면을 가진다(허태균, 2002).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안적 사고의 기본적인 기제는 부정적인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발생한다(Schwarz, 1990).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 주의가 집중되고 고도의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등의 “동기화된” 인지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Taylor, 1991). 부정적 사건에 대한 이런 편향된 반응은 미래의 행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는데(Taylor & Schneider, 1989),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는 긍정적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Sanna와 Turley(1996)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사후가정사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대안적 사건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전환성, 또는 전환가능성(mutability)이라고 하는데, 전환성은 현실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때 가능했던 대안적 사건으로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허태균, 2002). 전환가능성은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proximity), 사실적 사건의 정상성(normality),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등의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경험한 사실적 선행사건이 전환가능성(대안)이 있을 경우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Kahneman & Miller, 1986). 예를 들어, 일반적인(normative) 사건과 예외적인(exceptional) 사건에 있어서 전환성이 달라지고, 전환성이 높은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가정적 사고를 하게 된다(Kahneman & Miller, 1986; Kahneman & Tversky, 1982)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범죄미디어에서의 인과관계 피악에 적용해 본다면, 쳐벌이라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원인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즉, 조건부의 전환이 용이한 경우에는 사후가정사고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쳐벌이라는 결과에 대한 사실인식도 쉽게 재구성됨으로써 범죄행동의 억제 동기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조건부의 전환이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가정사고의 활성화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를 전환하는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쳐벌결과의 범죄억제 효과로 인해 범죄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결과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따라서 전환가능성이 낮음)보다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전환가능성이 높음)에 부정적 결과를 전환하는 가정적인 사고, 즉 처벌결과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전환시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를 더 많이 하여 처벌결과의 범죄억제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왜냐하면, 처벌결과와 처벌의 원인 간의 인과관계 인식이 약화될 경우 처벌결과와 처벌원인의 인과관계 인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억제효과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의해 처벌결과와 전환가능성의 차이를 조작하여(무처벌조건, 처벌조건: 우연처벌, 필연처벌)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 방법

### 연구절차

#### 사전조사(조작점검)

본 실험에 앞서 전환가능성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소재 K대학에 재학 중인 44명의 피험자에게 조작점검을 하였다. 대학생들을 피험자로 하는 만큼 이들이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규범위반 사건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리포트 도용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우연처벌조건과 필연처벌조건에 해당하는 본실험에 사용될 시나리오를 보여준 다음, '리포트 도용으로 인해 A가 경험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문장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작점검 결과 우연처벌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 4.35( $SD=1.799$ ), 필연처벌 시나리오의 경우 2.28( $SD=1.601$ )로 우연처벌조건에 대해서 전환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더 높게 지각하였다 ( $t=3.632$ ,  $df=42$ ,  $p<.001$ ).

## 본실험

조작점검을 통해서 전환가능성의 차이가 확인된 우연처벌조건과 필연처벌조건의 시나리오, 그리고 두 개의 처벌조건과 비교하기 위해 무처벌조건을 추가하였다. 피험자들에게 세 가지 조건의 시나리오 중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읽도록 한 다음,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기술하게 한 후, 리포트 도용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으로서 도용경험이 도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최대한 두 문항이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도용의도를 먼저 측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마지막에서 인적사항 등을 묻는 질문들 사이에 도용경험을 삽입함으로써 도용경험의 응답 시 응답자들이 앞의 문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솔직한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 연구대상

서울 소재 K대학교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60명과 경기도 소재 S대학에서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 36명에게 추가점수를 준다는 조건으로 수업시간에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중 남자가 43명(44.8%), 여자가 53명(55.2%)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

표 1. 조건별 시나리오의 구성

|          | 무처별 조건  | 처별 조건   |  |
|----------|---|---|--|
|          |   | 우연처별조건  | 필연처별조건   |
| 도용부분(공통) | 대학생인 A는 기말 리포트 마감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시험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고민 끝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A는 자신의 기말 리포트 주제와 비슷한 리포트가 있어서 약간의 금액을 결제하고 다운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리포트를 읽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자, 그 리포트의 다운 수가 매우 적었던 것을 떠올리고는 앞뒤 한 단락만 수정한 후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   |  |
| 적발부분     | A는 리포트를 제출한 이후로 성적이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만, 기말이라 교수님이 너무 바빠서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성적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  | 기대 이상의 성적을 확인한 A는 너무 기쁜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다. 교내 커피숍에서 친한 친구와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조교가 A를 알아보고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성적은 결국 F처리 되었다. | A의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리포트 도용여부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리포트를 검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A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리포트를 제출했다가, 교수님이 리포트를 검색해 본 결과 도용 사실이 들통나서 성적은 결국 F처리 되었다. |

다. 이들은 모두 학부생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0.6세였다. 3개 조건 중 무처별에 31명, 필연처별에 33명, 우연처별에 32명이 무선적으로 배분되었다. 하지만 필연처별 조건에 응답한 한 학생의 기술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측정도구

##### 시나리오

미디어가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포트 도용행위를 해당 범죄행위로 선정하였다<sup>7)</sup>.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좀 더

7) 본 연구에서의 범죄행위를 리포트 도용으로 선정한 이유는 폭행, 절도 등의 전형적인 범죄행위로 시나리오를 구성할 경우 범죄의도가 전반적

내용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리포트의 “도용”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용에 대한 결과로서 해당 성적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적발”부분으로 구성이 되었고, 도용부분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였고, 적발부분에서 독립변수인 처별여부나 전환가능성을 달리 처리하였다(무처별조건, 우연처별조건, 필연처별조건).

으로 낮아서 도용의도의 분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리포트 도용을 포함한 학업부정행위(Bushway & Nash, 1977)의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며(McCabe, 2004; 양돈규, 2003), 본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28.3%가 한 번 이상의 리포트 도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존 연구들(Gozna, Vrij, & Bull, 2001; Jung, 2009)에서 리포트도용 상황이 시나리오로 사용된 바 있다.

### 도용경험

비행의 경험이 미디어로부터의 폭력수용의 예측변인이 된다는 점(유상미, 2010)과 범죄경험이 재범위험성예측의 주요변인이 된다는 점(Andrews & Bonta, 2006; 이수정, 2007)은 과거의 범죄경험이 현재의 범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리포트도용의도에도 본인의 도용경험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리포트 도용의 경험은 통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변인에 해당하므로, 개인차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문에서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당신은 실제로 리포트 도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전혀 없다’, ‘1=한두 번 있다’, ‘2=3번 이상 있다’ 중에 고르게 하였다.

### 사후가정사고

전환가능성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별로 사후가정사고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응답자들이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 “위의 시나리오를 읽고 A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지시문과 함께 그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 다음, 그 응답의 내용 중 결과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적 사고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빈도의 결정 방법은 사후가정사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두 명이 각각 내용을 분석하여 사후가정사고에 해당하는 내용(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걸리지 않았을텐데”, “조금만 더 주의를 했더라면”, “학교의 정책을 알았다면” 등)을 선정한 다음,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데(평정자간 일치율  $r=.887$ ), 불일치하는 경우 의견 조율 후 최종적으로 빈도를 확정하였다.

### 도용의도

각 조건에서의 범죄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의 범죄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PAI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문항들 중에서 범죄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여 리포트 도용상황에 맞게 변형시켰다. 피험자는 ‘나는 필요하다면 리포트를 도용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본인에 해당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결과

결과에서는 처벌결과와 결과의 전환성이 도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처벌유형에 따라서 사후가정사고의 빈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전환성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처벌유형에 따른 리포트 도용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처벌유형에 따른 차이가 리포트 도용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도용경험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하였다.

### 처벌유형에 따른 사후가정사고

응답자들은 시나리오에서의 행위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대체로 3문장 또는 4문장으로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M=3.6$ ,  $SD=1.66$ ). 그 중 세 조건에서의 사후가정사고 문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처벌조건( $M=.03$ ,  $SD=.180$ )과 두 가지 처벌조건 즉, 우연처벌( $M=.59$ ,  $SD=.615$ ), 필연처벌( $M=.19$ ,  $SD=.397$ )

표 2. 처벌유형별 사후가정사고

|        |              | 무처벌            | 우연처벌           | 필연처벌           | 합계            |
|--------|--------------|----------------|----------------|----------------|---------------|
| 사후가정사고 | 평균<br>(표준편차) | .03a<br>(.180) | .59b<br>(.615) | .19a<br>(.397) | .27<br>(.493) |
| 사례수    |              | 31             | 32             | 32             | 95            |

a, b는 Sheffe 사후검정 결과

조건에 할당된 세 집단의 사후가정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2,92)=13.942, p<.001$ ).

특히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필연처벌조건에 비해서 전환가능성이 높은 우연처벌조건에서 더 많은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환가능성의 조작이 없었던 무처벌조건의 경우에 우연처벌조건에 비해서 사후가정사고 빈도가 낮고, 사후가정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 처벌유형에 따른 도용의도

무처벌( $M=1.23, SD=.425$ ), 우연처벌( $M=1.28, SD=.457$ ), 필연처벌( $M=1.37, SD=.609$ ) 등 처벌유형에 따른 세 집단의 도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2,92)=.707, p=.496$ ).

도용경험이 공변인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용경험과 도용의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변인 사

이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 $r=.500, p<.001$ ). 따라서 도용의도에 대한 도용경험의 효과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치인 도용의도에서 공변인의 효과를 제거한 추정된 도용의도는 무처벌 조건에서 평균  $3.55(SD=1.929)$ , 우연처벌 조건에서 평균  $3.50(SD=1.685)$ , 필연처벌조건에서 평균  $2.72(SD=1.486)$ 로 나타나, 조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2,91)=5.406, p=.006$ ).

그리고 개별 조건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공변량분석에서는 사후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들 별로 공변량 분석을 따로 실시한 결과, 무처벌과 우연처벌 조건 간에는 평균의 차이가 없었지만 ( $F(1,60)=.143, p=n.s.$ ), 필연처벌 조건에서의 추정된 도용의도는 무처벌( $F(1,60)=9.814, p=.003$ )과 우연처벌( $F(1,61)=8.315, p=.005$ ) 조건에서의 추정된 도용의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예상한

표 3. 처벌유형에 따른 추정된 도용의도

|          |              | 무처벌             | 우연처벌            | 필연처벌            | 합계              |
|----------|--------------|-----------------|-----------------|-----------------|-----------------|
| 추정된 도용의도 | 평균<br>(표준편차) | 3.55<br>(1.929) | 3.50<br>(1.685) | 2.72<br>(1.486) | 3.25<br>(1.732) |
| 사례수      |              | 31              | 32              | 32              |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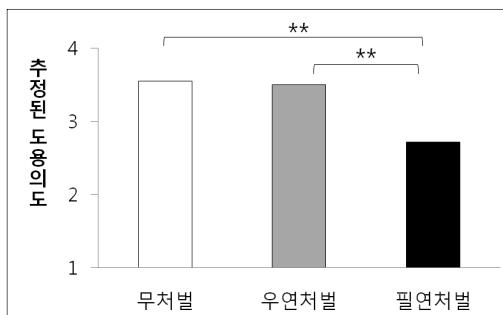


그림 1. 처벌유형에 따른 추정된 도용의도

대로 처벌유형에 따른 범죄의도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전환가능성을 달리 한 두 개의 처벌조건에서 도용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벌 결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범죄미디어가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 주목한 것이 바로 사후가정사고이다. 시나리오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범죄미디어가 범죄의도에 미치는 효과에서의 사후가정사고의 역할을 검증하여, 구체적으로는 처벌결과의 억제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먼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결과의 억제효과가 결과의 전환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우연처벌조건에서는 필연처벌조건에 비해서 범죄의도가 높았으며, 무처벌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범죄의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규범위반(도용) 행동이 동일하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억제 효과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미디어에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처벌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필연적이지 않다면 억제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처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개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가능성에 의해 서 매개되는 사후가정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모델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연처벌조건에 할당된 다수의 대상자들이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라는 사후가정적 사고를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사후가정사고의 역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이런 전환가능성의 역할은 처벌의 확실성(certainty of punishment) 지각이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일련의 연구결과(Erickson, Gibbs, & Jensen, 1977; Tittle & Rowe, 1974)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미디어가 범죄현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Pfeiffer, Windzio, & Kleimann, 2005)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전환성으로 인해 결과를 바꾸어 생각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을 보여준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우리 삶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선정적인 범죄미디

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범죄미디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칫 지나친 일반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 의미를 고려하여 범죄 미디어 현상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주변상황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Snyder & Campbell, 1982), 시청자는 화면에서 묘사된 행동들이 TV에서 방영되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만큼(Bandura, Underwood, & Fromson, 1975),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한국의 영화들,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간혹 무능한 경찰의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이봉한, 2010), 처벌의 가능성 또는 확실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범죄진압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Schlesinger & Tumber, 1994).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면, 무능한 경찰과 지능적인 범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우연성 인식을 심어주는 미디어의 제작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고, 이 와중에 수사와 범인체포에서의 우연성이 강조되는데, 사회공익적 차원을 고려한다면 범죄미디어의 제작시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

지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연구의 방향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하는 영상물을 자극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실제 영상물을 이용해서 피험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조건의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후에 연구가 진행된다면 범죄영상을 형태의 자극을 사용하는 방법(곽금주, 1993)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상물을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험자들의 현실감을 높이는 방법의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제시할 때 “다음은 모 대학에서 발생했던 시험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기사를 읽겨놓은 것이다.”라는 제시문을 주었더라면 좀 더 실제 미디어 형태에 가까운 자극제시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 태도, 의도 등을 측정하는 연구의 공통적인 한계점으로, 이러한 연구가 실제 행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고식의 태도를 측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범죄나 일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태도가 행동의 강력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Fishbein & Ajzen, 1975)처럼 범죄의도의 증가가 범죄 가능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도와 행위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Surette, 1992), 치밀한 과학수사에 의한 것인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사에 의한 것인든 그것에 의해서 범죄의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수용자의 가치관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리포트 도용 경험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유의미한 공

변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심각한 범죄 상황을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등장(Surette, 2007)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의 TV 시청 당시의 목적, 의도, 정서상태가 범죄미디어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왜 무처벌조건에서는 사후가정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처벌조건에서 사후가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왜 도용의도가 높지 않은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선, 사후가정사고의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부정적인 사건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사후가정사고의 발생빈도가 낮다는 설명으로 부분적인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처벌조건의 몇몇 응답자들이 무처벌 결과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인식(예를 들어, “위의 시나리오는 한국대학생들에게 흔히 있을 법한 사례이다.”)을 보여준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와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 인식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비교문화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문화차가 존재한다고 한다(Hur et al., 2009). 따라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의 내용이 문화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범죄의도에 관한 서구의 고전주의 이론에 따르다면, 일반적으로 범죄의도는 경제학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므로,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전환

성에 따라서 결과의 내용이 범죄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반면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같이 처벌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동양적 사고 하에서는 전환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수정하는 사후가정사고가 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디어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한두 개의 심리학적 개념들로 분석해내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구의 어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분야이기도 하다. 미디어와 범죄에 관한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률 등을 보는 사회학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고,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을 통해서 왜 미디어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변인들과 심리적 기제에 의해 효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한다면 심리학이 범죄의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곽금주 (1993).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15-35.

김기병 (2010). 범죄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정순 (1999).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의문: 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텍스트언어학*, 7, 1-28.

양돈규 (2003).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지각과 시험부정행위 경험 및 학업성

적간의 관계와 관련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615-631.

유상미 (2010). 폭력 영상매체 노출에 따른 청소년 비행연구: 사회학습 이론과 둔감화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3, 41-71.

윤 진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봉한 (2010). 경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관행 연구: 2004~2008년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 169-194.

이수정 (2007).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소년 디버전을 위한 비행성 평가절차의 재범예측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47-57.

허태균 (2002). 사후가정사고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71-190.

Anderson, C. A. (1997). Effects of violent movies and trait hostility on hostile feelings and aggressive thoughts. *Aggressive Behavior*, 23, 161-178.

Anderson, C., Keltner, D., & John, O. P. (2003). Emotional convergence between peopl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54-1068.

Andison, F. (1977). TV violence and viewer aggression: A review of study results, 1956 ~ 1976. *Public Opinion Quarterly*, 41, 314-331.

Andrews, D. A., & Bonta, J. (2006).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4th edition). Lexis. Nexis. Anderson Publishing.

Bandura, A. (1978). A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Bandura, A. (1979). *Psychological mechanism of aggression*. In M. von Cranach, K. Foppa, W. Lepenies, & D. Ploog (Eds.), *Human ethology: Claims and limits of a new discipline* (pp. 316-35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ndura, A. (1994). *Social cognitive theory of mass communication*.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355-394). Washington, DC: Hemisphere.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1).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on model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3), 575-582.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model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1), 3-11.

Bandura, A., Underwood, B., & Fromson, M. E. (1975). Disinhibition of aggression through diffusion of responsibility and dehumanization of victi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9, 253-269.

Bandura, A., & Walters, R. H. (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aron, R. (1971). Exposure to an aggressive model and apparent probability of retaliation as determinants of adult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343-355.

Belson, W. A. (1978). *Television violence and the adolescent boy*. Farnborough: Saxon House.

Berkowitz, L. (1969).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revisited' in L. Berkowitz (ed.) *Roots of aggression: a re-examination of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New York: Atherton Press.

Berkowitz, L. (1993). *Aggression*. New York: McGraw-Hill

Branscombe, N. R. & Weir, J. A. (1992). Resistance as stereotype-inconsistency: Consequences for judgments of rape victi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80-102.

Bryant, J. & Zillmann, D. (2002). *Media effec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1). Media violence and the American public: Scientific fact versus media misinformation. *American Psychologist*, 56, 477-489.

Bushman, B. J., Baumeister, R. F., & Stack, A. D. (1999). Catharsis messages and anger-reducing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367-376.

Bushway, A., & Craig, D. (1990). Adolescent cognition for academic cheating as a function of grade level and achievement statu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325-345.

Comstock, G. (1980). *Television in America*. Newbury Park, CA: Sage.

Dahl, G., & Vigna, S. D. (2009). Does movie violence increase violent crim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2), 677-734.

Dowler, K. (2004). Comparing American and Canadian local television crime stories: A content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 573-596.

Erickson, M. L., Gibbs, J. P., & Jensen, G. F. (1977). The deterrence doctrine and the perceived certainty of legal punishments. *American Social Review*, 42(2), 305-317.

Feshbach, S. (1984). The catharsis hypothesis, aggressive drive, and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0, 91-101.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Fleming, T. (2006). *The history of violence: Crime construction in the Canadian medi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Sociology and Anthropology Association, Toronto.

Freedman, J. L. (1984). Effect of television violence on aggressiveness. *Psychological Bulletin*, 96, 227-246.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Gleicher, F., Bonigner, D., Strachman, A., Armor, D., Hett, J., & Ahn, M. (1995).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The impact of counterfactual thinking on affect, attitudes, and behavior*. In N. J. Roese & J. M. Olson (Eds), *What might have been: The Social Psychology of counterfactual thinking* (pp.283-304). Mahwah, NJ: Erlbaum.

Gozna, L. F., Vrij, A., & Bull, R. (2001).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s

of lying in everyday life and in a high stake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7), 1203-1216.

Hennigan, K., Heath, L., Wharton, J., Del Rosario, D., Cook, T., & Calder, B. (1982).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elevision on Crim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461-477.

Hicks, D. J. (1965). Imitation and reten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peer and adul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97-100.

Huesmann, L. R., & Eron, L. D. (1984). Cognitive processes and the persistence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10, 243-251.

Hur, T., Roese, N. J., & Namkoong, J. (2009). Regrets in the East and West: Role of intrapersonal versus interpersonal norm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2), 151-156.

Jung, I. (2009).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s: Applying a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to measuring ICT ethics of college students. *Computers & Education*, 53(3), 940-949.

Kahneman, D., & Miller, D. T. (1986). Norm theory: comparing reality to its alternatives. *Psychological review*, 93, 136-153.

Kahneman, D., & Tversky, A. (1982). *The simulation heuristics*. In D. Kahneman, P. Slovic, & Tversky (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pp. 201-208).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Kaplan, R. M. (1972). On television as a cause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27, 968-969.

Landman, J. (1983). *Regre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Lu, W., Waterman, D., & Yan, M. (2005). *An economic study of violence in motion pictures: Genre trends and technology change*. Submitted to the Mass Communication Divis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November 1. available at [http://www.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0/9/2/5/5/pages92559/p92559-1.php](http://www.allacademic.com//meta/p_mla_apa_research_citation/0/9/2/5/5/pages92559/p92559-1.php)

Macrae, C. N. (1992). A tale of two curries: Counterfactual thinking and accident-related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84-87.

Mandel, D. R. (2003). Effect of counterfactual and factual thinking on causal judgements. *Thinking and Reasoning*, 9(3), 245-265.

McCabe, D. L. (1992). The influence of situational ethics on cheating among college students. *Sociological Inquiry*, 62(3), 140-144.

McCombs, M. & Shaw, D. L. (1973).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7, 62-75.

McLuhan, M. (1967). *The medium is the me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City of Westminster, London: Penguin Books.

Medvec, V. H., & Meday, S. F., & Gilovich, T. (1995). When less is more: Counterfactual thinking and satisfaction among Olympic athle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603-610.

Michaels, J. W., & Miethe, T. D. (1989). Applying theories of deviance to academic cheating. *Social Science Quarterly*, 70(4), 870-885.

Nario-Redmond, M. R., & Branscombe, N. R. (1996). It could have been better or it might

have been worse; Implications for blame assignment in rape cas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347-366.

Paik, H., & Comstock, G (1994).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on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21, 516-546.

Pfeiffer, C., Windzio, M., & Kleimann, M. (2005). Media use and its impacts on crime perception, sentencing attitudes and crime policy.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2(3), 259-285.

Pyszczynski, T. A., & Greenberg, J. (1981). Role of disconfirmed expectancies in the instigation of attributional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1-38.

Roberts, J. (2001). *Fear of crime and attitudes to criminal justice in Canada: A review of recent trends*. Ottawa: Ministry of the Solicitor General.

Roese, N. J. (1994). The functional basis of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05-818.

Roese, N. J. (1997). Counterfactu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 133-148.

Roese, N. J., & Hur, T. (1997). Affective determinants of counterfactual thinking. *Social Cognition*, 15, 333-350.

Rosenthal, T. L., & Zimmerman, B. J. (1978). *Social learning and cognition*. New York: Academic.

Sanna, L. J., & Turley, K. J. (1996). Antecedents to spontaneous counterfactual thinking: Effects of expectancy violation and outcome val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906-919.

Schlesinger, P., & Tumber, H. (1994). *Reporting crime: The media politics of criminal justice*. Oxford and New York: Clarendon Press.

Schwarz, N. (1990). Feelings as information: Informa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527-561).

Severin, W. J., & Tankard, J. W. (1997).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mass media*. New York: Longman.

Snyder, M., & Campbell, B. H. (1982). Self-monitoring: The self in ac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pp. 185-20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urette, R. (1992).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Pacific Grove, CA: Brooks.

Surette, R. (2007). *Media, crime, and criminal justice: Images and Realities* (3rd eds). Belmont, CA: Thomson-Wadsworth.

Taylor, S. E. (1991). Asymmetrical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The mobilization-minimization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67-85.

Taylor, S. E., & Schneider, S. K. (1989). Coping and the simulation of events. *Social Cognition*, 7, 174-194.

Tittle, C. R., & Rowe, A. R. (1974). Certainty of arrest and crime rates: A further test of deterrence hypothesis. *Social Forces*, 52, 455-462.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Wells, G. L., and Gavanski, I. (1989). Mental simulation of caus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61-169.

논문투고일 : 2011. 10. 4.  
1차 심사일 : 2011. 10. 28.  
2차 심사일 : 2012. 7. 15.  
제재확정일 : 2012. 8. 21.

## **The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Media's Criminogenic Effects: Criminal Intent with the Mutability of Punishment Consequences**

**Sangyeon Yoon**

**Di Zhang**

**Taekyun Hu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Criminal media such as dramas and movies are growing in popularity. However, the effects of criminal media as well as its psychological mechanism are not clearly examin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8), past studies showed that arrest and punishment to the criminal in media have a suppressing effect.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the ironic possibility that media coverage of punishment could increase the audience's criminal intention and proposed the mediating role of counterfactual thinking in the effect. We hypothesized that when punishment was depicted as accidental rather than unavoidable in media coverage, perceived high mutability and counterfactuals focusing on the accidental factors could clarify the ways to commit the crime without being caught and subsequently increase future criminal intention. In this study, 95 college students read a story of plagiarizing either no, accidental, or inevitable punishment, and later asked to report their intention to plagiarize. An ANCOVA with participants' own history of plagiarism as a covariate foun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futu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in the inevitable punishment condition. Further, the intention of plagiarism in the accidental punishment condition was the same level with non-punishment condi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whether criminals are caught or not is not enough to reduce criminal intentions of audience, but how criminals are caught matters.

*Key words : criminal media, intention of crime, social learning theory, mutability, counterfactual thinking*